

# “자신을 다 던져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문학” ‘백년 광대’와 ‘오방신’ 신명이 넘친다

국립정동극장, 6일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서 ‘광대’ 공연

김병호 시인, 평론집·시집  
‘풍경의 낚임스’·‘슈케이징’ 펴내  
평론가·대학교수 등 1인 4역  
“삶의 갈피에서 근원적 감정 담아”



김병호(54·사진)는 문학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문학인이다. 그의 이름 뒤에는 시인, 평론가, 문예지 주간, 대학교수라는 직함이 따라붙는다.

하나도 제대로 하기 힘든 세상에서 그는 4개의 전문 영역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물론 아버지, 남편이라는 역할까지 포함하면 그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을 만큼 바쁠 것으로 짐작된다.

광주 출신 김병호 시인이 최근 평론집과 시집을 펴냈다. ‘풍경의 낚임스’ (문학수첩)와 ‘슈케이징’ (시인의 일요일)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과 미학을 보여주는 저작물이다.

“해아려보니 시집은 ‘백핸드 발리’ 이후 7년 만입니다. 시 한 편을 쓰고 나면 한 열흘은 꼼짝 못하는 체질이죠. 진이 빠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시집 한 권의 분량을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필요했고, 그렇게 모은 시도 다시 걸러내다 보니 시간이 더 더디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격적 평론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에 학위논문은 일반 문학교양서로 다듬어 출간한 적이 있었지만, 시집 해설이나 서평, 시평, 시인론 등을 묶은 문학평론집은 처음이에요.”

두 권의 책을 발간하게 된 데 대해 묻자 돌아온 답이었다. “특정한 주제를 기획하거나 전체적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만 시를 모아 보니 어떤 큰 맥락이나 마음의 결이 한데 모아진 것을 느꼈다”며 “삶을 살아가는 어느 구간에 잠시 머물며 소용돌이쳤던 정서와 감각들이니 아무래도 뭔가 엇비슷한 결이 있지 않을까 짐작은 한다”고 그는 말했다.

송원고를 거쳐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월간문학’ 신인상,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현재 반연간 ‘문학수첩’과 계간 ‘시로여는 세상’의 편집위원과 주간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협성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연이어 시집과 평론집을 발간하게 된 데 대해 그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선생님께서 ‘시인이 시집만 내면 돼지, 다른 글은 모두 잡문이니

괜한 욕심 내지 말고 시만 열심히 쓰라’고 한 적이 있다”며 “그럼에도 말씀을 어기고 평론집까지 내게 된 것은 20년이 넘었으니 평론집 한 권 정도는 있어도 되겠다 싶었다”고 했다.

시집 ‘슈케이징’은 의미가 깊은 ‘시어’다. 신발(shoe)+뚫어지게 보다(gaze)가 결합된 말로 ‘소통의 의지 없이 자신의 발만 내려다보며 연주하는 것 때문에 붙여진 인디 록의 장르’라고 한다.

“다소 부끄럽지만 시집 ‘슈케이징’은 연애시로 읽어도 무방할 것 같다”는 말에서 시집의 지향점 내지는 경향성을 짐작하게 한다. “구체적 인물이나 특정한 사건을 근거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삶의 어느 갈피에서 갈출 수 없게 튀어나오는, 그 리움이나 사랑 같은 근원적인 감정을 이미지와 이야기로 펼친 것들이 많다”며 “어떤 분은 제 시집을 읽고 ‘아팠다’고 하시던데, 저도 쓰면서 아파했던 시들이었다”고 그는 전했다.

평론집은 20여 년 넘게 썼던 글들 중에서 추린 것이라 하나의 주제로 압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다. 다만 주제나 대상이 현재에도 유효한 것들을 모아보려 했다는 말에서 고심의 단면이 읽힌다.

“우리 시가 지나고 있는 자리의 이정표도 보이는 것 같고, 많은 평론가와 독자들이 주목하는 시인과 시보다는 묵묵하게 자기 자리에서 시와 시의 자리를 지키려는 시인들에게 더 오래 눈길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시의 언어와 평론의 언어는 다소 다를 텐데 어떻게 창작을 하고 비평을 하는지 궁금했다. 대체로 한 분야만을 하기에도 벅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는 “시를 쓸 때에는 어렵고 힘든 마음과 나름의 즐거움이 반반이어서 이겨낼 만하다”면서도 “평론은 대부분 주문 생산의 경우가 많아서 시에 비해 손길이 더 무겁다”고 언급했다.

문장과 교수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일도 벅할 텐데도 그는 “학생들과 시를 함께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좋다”고 한다. “시를 전공하겠다는 학생의 수는 줄어들지만 시에 대한 열정과 욕심을 가진 학생들은 꾸준히 있어서” 가끔씩 선생의 관점보다는 그 길을 먼저 걸어온 선배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계간지 일도 나름 재미가 크다고 얘기했다. “계간지 일을 핑계로 시인을 만나면 시의 행간에서 읽지 못한 시인의 속내도 알게 된다”고 밝혔다.

문단의 흐름을 감지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려 주기도 용이한데, 시의 올바른 흐름을 만들고 지킬 수 있다는 작은 사명감도 가지고 있을 법했다.

김 교수는 고향인 광주에 대해 묻자 “광주 사람이란 말에 제 삶의 가치와 무게를 얹고 살아가려는 사람 중 하나라며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이 살고, 애정하는 몇몇 선배 시인들도 계셔서 자주 다녀가는 편’이라는 말로 광주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특히 “중장로 우체국 앞에 있었던 나라서적은 청춘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다”며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곳에서 김남주와 박노해, 한수산과 신경숙을 읽었다”고 회상했다.

마지막으로 문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스스로를 벼락까치 몰아보려고 이야기하고 싶다”는 다소 무거운 말이 돌아왔다. “자신을 다 던지지 못하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랑이고 그게 문학이라고 생각해요. 100을 다 주려고 더 주지 못한 안타까움과 후회가 결국 사랑이 되고 문학이 되는 게 아니냐고, 저는 강의실에서 되묻곤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정동극장 ‘광대’ 공연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판소리는 보존해야 할 전통인 동시에, 시대를 앞서 수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해온 예술이다. 고정된 유희가 아닌 살아있는 예술로서 판소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가 펼쳐진다.

국립정동극장이 오는 6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악당에서 ‘광대’를 선보인다. 국악원 토요 상설공연 ‘국악이 좋다’의 초청작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번 공연은 소리와 무용, 궁중음악을 한데 모은 악가무희(樂歌舞戲) 총체극이다. 지난해 ‘소춘대유희 The Eternal Troupe’이라는 이름으로 쇼케이스 공연을 선보였고, 이후 완성도를 인정받아 정식 장기 공연으로 이어졌다.

이 이야기는 공연을 준비하던 예술단원들 앞에 백 년 동안 극장을 지켜온 ‘백년 광대’와 ‘오방신’이 나타나

면서 시작된다. 이들은 시대를 초월한 유희와 광대 정신을 펼쳐내며 관객들에게 신명과 흥을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근대 5대 명창’으로 꼽히는 이동백 명창이 디지털 휴먼으로 구현돼 등장한다. 그의 대표곡 ‘새터링’도 복원돼 실제 소리꾼의 무대와 아우러지며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한다.

출연진 역시 눈길을 끈다. 극장 예술단장 ‘순백’ 역에는 소리꾼 이상화가 나선다. 그는 음악극 ‘적료’, 판소리 뮤지컬 ‘적벽’ 등을 통해 이미 대중성과 실력을 입증했다. 극의 반전 열쇠인 ‘아이’ 역은 7세 소리꾼 최이정이 맡았다. 그는 방송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출연하며 판소리 신동으로 주목받았고,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금상을 거머쥔 바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일상의 약하고 보잘 것 없는...

해남 출신 김시립 시인, 시집 ‘나팔고동 좌표’ 펴내

시인들은 저마다의 시어와 감성으로 작품을 쓴다. 관심 분야에 따라 시의 모티브, 창작의 동기는 천차만별이다.

어떤 시인은 일상을 노래하고, 문학의 본질에 천착하며, 또 어떤 이는 사계절의 풍경을 묘사하기도 한다.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자신만의 개성적인 목소리로 풀어내는 시인도 있다. 타자에 대한 연민, 관계성 등에 방점을 두고 시를 쓰는 이도 있다.

해남 출신 김시립 시인은 우리 주위의 약하고 보잘 것 없는 대상에 주목한다.

최근 펴낸 다섯 번째 시집 ‘나팔고동 좌표’ (상상인)는 시인이 추구하는 시 세계가 집약돼 있다.

작품집 전체에 흐르는 기조는 연민과 여백이다.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전제되지 않고는 획득될 수 없는 정조다.

시인인 황정선 평론가는 “김시립의 시들에는 곧 사라져 갈 운명을 가진 작고 약하고 하찮은 것들이 자주 등장한다”며 “시인은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애정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안온한 언어로 위로한다”고 평한다.

“병원 로비에는 뚝 떼어놓은 / 심해(深海) 한 조각이 산다”(중략) 19동 112호, 이 병실엔 수

시로/ 폭풍 해일이 몰려온다// 작은 수족관 같은 목숨,/ 어긋난 수치들은 해열제와 인슐린과 전해질과 혈소판/ 수혈 등으로 즉시 교정된다// 스스로 침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당신,/(후략)”

표제시 ‘나팔고동 좌표’는 병원 로비에 놓인 작은 수족관 속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다. 화자는 병실에 누워 있는 이의 목숨을 수족관으로 치환한다. 어긋난 수치는 예외없이 즉시 교정되기 때문이다.

어쩌면 병실이나 수족관, 우리 사는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다. 어쩌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한 이들의 고통과 아픔이 배면에 드러워져 있기 때문이다. 나약하고 고달픈 삶의 ‘좌표’에 매인 이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은 깊고 따스하다.

마경덕 시인은 “이번 시집은 인간 본연의 자세를 중시한다”며 “무엇보다 여음(餘音)이 남는 시의 여백은 시인에게 가장 큰 힘이다”고 언급한다.

한편 김 시인은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으며 ‘불교문예’로 등단했다. 지금까지 ‘그리움으로 자전거 타는 여자’, ‘부끄럼 타는 해당화’ 등을 펴냈으며 ‘불교문예’ 편집장을 맡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건강한 육아 위한 ‘아빠힐링캠프’

22일까지 양육 가정 40팀 모집

부모가 스스로의 성격과 기질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아이에게 맞는 건강한 양육이 가능하다.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10월 18일 오후 2시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제4회 아빠힐링캠프’를

연다. 이번 행사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에 ‘함께 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준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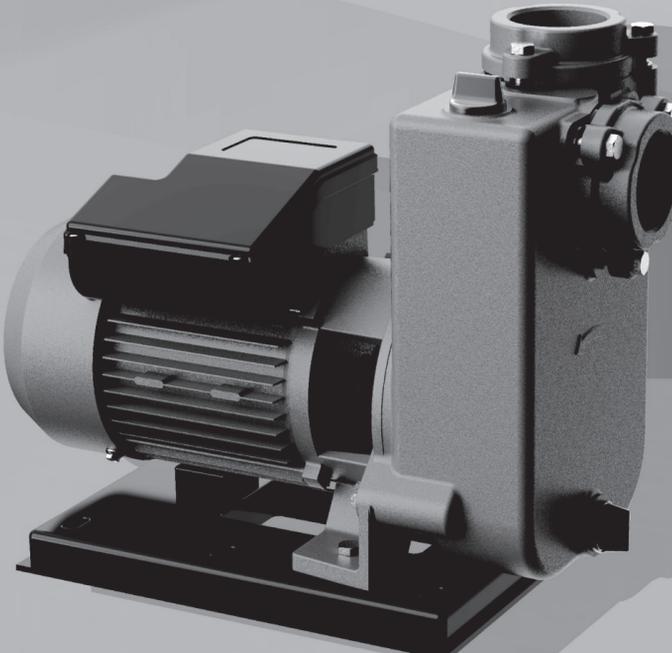
참가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양육 가정 40팀이며, 신청은 1일부터 22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 모집한다.

아빠힐링캠프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 부모 스

로의 성격적·기질적 특성이 자녀 양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설계됐다. 참가자는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부모양육기질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양육 상담을 진행한다. 나를 알고 아이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는 더 적절한 양육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아이와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과 축하공연,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만들기 체험 등이 준비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